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이 정 윤[†]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이 경 아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아동과 부적응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개인특성(내면화-외현화문제, 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과 가족특성(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 부모갈등)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적응아동과 부적응아동을 구분해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35명(남자 259명, 여자 27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결과, 학교적응은 자기존중감 및 사회성기술,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학교적응과 부모갈등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검증에서는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기존중감과 사회성기술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내면화 및 외현화문제는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긍정적, 개방적이었고, 보다 애정적이고 민주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지각하고 있었다. 회귀분석결과, 개인변인들 가운데는 아동의 자기존중감이 학교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었으며, 가족변인들 중에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었다. 판별분석에서는 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 외현화문제가 학교적응아동과 부적응아동의 약 84%를 정확히 구분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 학교적응, 내면화-외현화문제, 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부모갈등.

-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연구대상 변인 선정, 변인 측정을 위한 척도 선택 및 조합, 척도에 포함될 문항 취사선택 및 배열)은 우석대학교 문성원 교수와 공동으로 하였음.
- 설문지에 포함된 'Social Skills Rating System'의 문제행동척도 12문항은 우석대학교 문성원 교수가 번안한 것임.

†교신저자 : 이 정 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708-113,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전화 : 031-467-0934 E-mail : jungyoon@anyang.ac.kr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적응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은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격을 형성하고 적응하는 것에 비해, 학령기 이후에는 아동의 생활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성민선, 이상오, 정무성과 정은, 1998).

학교적응은 연구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소 다른데, 민영순(1994)은 아동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 등에 있어 적절하고 조화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적응으로 정의하고 있다.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6)은 아동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고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학교적응을 설명하여, 아동의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과 감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차유림(2000)은 학교적응을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비해 장호성(1987)은 아동이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학교적응이라고 정의하여, 학생의 학습참여도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었다. 이와 같이 학교적응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는가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경아와 정현희(1999)는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안에서 학업성취도가 학교적응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들어 학교성적 뿐 아니라 자기존중감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이 학교적응에 있어서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영순(1994)과 장호성(1987), 이경아 등(1999)의 정의를 종합하여, 학교의 규범, 질서를 준수하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적절하고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자신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적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온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아동의 개인특성(성, 연령, 학업성적, 자아개념 등)과 가족특성(가족구조,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 가족응집성 등)이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려는 것들이었다(임정순, 1993; 이훈진, 1999; 김태희, 1996; 박수정, 1998; 서명성, 1998; Forehand, Long, Brody & Fauber, 1986; Allen, Hayser, Bell & O'Conner, 1994; Chartrand, 199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학교적응과 관계있는 한 두 가지 요인을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는데 그쳤으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련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히거나 학교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을 구별해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하였다. 또한 학교적응은 사실 초등학교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초등학교 때의 적응수준과 질이 중학교 이후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이 됨(정현희, 2003)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Hamburg, 1992).

그 동안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족변인들로는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를 꼽을 수 있다. Chartrand(1992)와 유윤희(1994)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의 학

교적응이 양호하다고 하였다. 또한 Bronstein 등 (1996)은 부모의 지지적이고 지각하는 양육행동은 5학년 시기의 긍정적인 학업적, 사회적,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긍정적 양상은 7학년 시기에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경과 이재연(1998)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족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업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행동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임이 강조되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역시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Tesser, Forehand, Brody와 Long(1989)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 경우 자녀의 적응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박성수(1979)는 가족의 의사소통 장애와 아동의 학교부적응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차유림(2000)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 모두 학교적응을 기준변인으로 한 단순회귀분석에서 각각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의사소통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수용적,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선희와 김경연(2001)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ummings, Davis와 Simpson(1994)과 Grych와 Fincham(1990)은 객관적인 부부불화보다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때 더 나아가 아동의 학교적응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가족변인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검증을 넘어서서 변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들로는 자기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행해져왔다. Allen 등(1994)은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학교적응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Aunola, Stattin와 Nurmi(2000)는 자기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부적응적인 성취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내면화 및 외현화문제를 보이며 학교에서도 부적응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차유림(2000)은 학교적응에 미치는 자기존중감의 영향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기존중감 이외에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심리사회적 변인들로는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있다. Doll(1996)은 아동이 맷는 또래관계는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또래관계가 아동의 학업적 혹은 정서적 문제를 경고해 주며,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Buhs와 Ladd(2001)는 소위 왕따와 같이 친구들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학교에서의 수업참여도가 감소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학교를 회피하고자 하며, 학업성취도 또한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 문제 해결기술은 학생이 학교환경에 잘 대처하도록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며(정현희, 2003), 우울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행동문제를 보일 확률이 정상청소년에

비해 더 높고(신민섭, 1997), 청소년들이 보이는 대표적 행동문제인 품행장애는 청소년의 학교부 적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경아 등, 1999).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관련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데 그쳤으며,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차유림(2000)의 연구에서도 자기존중감 변인 하나만을 가지고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개인적 차원의 심리사회적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적응우수아동과 학교부적응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이들의 개인특성(내면화-외현화문제, 자기존중감, 사회성 기술)과 가족특성(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부모갈등)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교적응우수아동과 부적응아동을 구분해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지를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 학교적응여부를 구분해 주는 요인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별로 나누어 추가적인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등학생 5, 6학년 6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총 피험자는 535명(남자 259명, 여자 276명)이었다. 학교 적응을 잘 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을 구분하기 위해 학교적응 총 점수에서 상하위 30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학교적응우수집단에는 169명(남 71, 여 98), 부적응집단에는 164명(남 89, 여 75)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대상자의 성별비율은 남학생이 48.4%, 여학생이 51.6%였고, 학년은 5학년이 전체의 43.9%, 6학년은 56.1%였다. 연구 대상자의 경제수준은 중상이상이 전체의 45.8%였고, 중간이 44.9%, 중하이하가 9.4%에 해당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상이 5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졸로 35.0% 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고졸(51.6%), 대졸이상(40.4%)의 순이었다.

측정도구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배숙진(1998)의 학교생활적응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각각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따라서 32점부터 160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적응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6$ 으로 나왔다.

내면화-외현화문제

아동의 내면화-외현화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번안한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와 Gresham과 Elliot(1990)이 개발한 Social Skills Rating System의 문제행동척

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척도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내면화문제는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관계위축을 포함하는 11문항이며, 외현화문제는 비행과 공격성을 포함하는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점 척도로 응답하는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척도는 각각 11점부터 33점, 13점부터 39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면화문제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78$ 이며, 외현화문제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1로 나왔다.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기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총체적 자기존중감,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자기존중감, 그리고 가정 및 학교에서의 자기존중감과 같은 4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5점 척도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32점부터 160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존중감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9$ 로 나왔다.

사회성기술

아동의 사회관계에서의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Matson, Rotatori와 Helsel(1983)이 개발하고 박난숙과 오경자(1992)가 번안한 사회기술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62문항으로 되어있으나, 문항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여 50문항 단축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되어있어, 점수는 50점부터 250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기술이 유능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성기

술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7$ 로 나왔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민혜영(1990)이 번안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질문지(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정도를 측정하며, 부모 각각 5점 척도 20문항씩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점수분포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이뤄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92$ 로 나왔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PBRSParent Behavior Rating Scale)를 기초로 곽중섭(1994)이 아동중심-성인중심, 민주적-전제적, 격려적-비난적, 애정적-적대적 네 요인으로 구성한 부모양육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네 가지 하위척도에 각각 4점척도로 된 6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네 척도 각각 6점에서 24점까지 점수가 분포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중심적이고 민주적이며 격려를 많이 하며 애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7$ 로 나왔다.

부모 갈등지각

부모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제작하고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한 부모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사용하였다. 이는 3점 척도 48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는 48점부터 144점까지 분포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갈등이 심하고 아동이 부모갈등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4$ 로 나왔다.

분석방법

먼저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교적응 총 점수에서 상하위 30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적응집단(169명:남 71, 여 98)과 학교부적응집단(164명: 남 89, 여 75)을 구분하고, 두 집단간 개인 및 가족변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적응 총 점수를 기준변인으로 하고, 개인요인(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 내면화, 외현화문제)과 가족요인(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부모갈등)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교적응

우수집단과 부적응집단을 잘 구분해주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시에는 535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t-test와 판별분석시에는 학교적응척도의 점수에 근거하여 적응우수집단과 부적응집단 333명을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학교적응은 자기존중감 및 사회성기술과 중등도 이상(.50 ~ .62)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와는 역상관(-.41 ~ -.48)을 보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는 .38 ~ .43의 상관을 보였고, 부모양육태도와는 .40의 상관을 보였다. 한편 학교적응과 부모갈등은 -.05의 매우 약한 부적

표 1.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학교적응	-								
2. 내면화문제	-.475***	-							
3. 외현화문제	-.414***	.414***	-						
4. 사회성기술	.503***	-.517***	-.668***	-					
5. 자기존중감	.620***	-.524***	-.327***	.507***	-				
6. 부의사소통	.430***	-.424***	-.285***	.429***	.604***	-			
7. 모의사소통	.383***	-.281***	-.284***	.385***	.515***	.571***	-		
8. 부모양육태도	.400***	-.319***	-.315***	.392***	.543***	.564***	.662***	-	
9. 부모갈등	-.051	.253***	.223***	-.164***	-.093*	-.199***	-.076*	-.216***	-

* $p < .05$, *** $p < .001$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 문제는 자기존중감 및 사회성기술과 약 .50 정도의 역상관을 보였으며, 외현화 문제는 사회성기술과 -.67, 자기존중감과 -.33의 역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양육태도는 내면화 문제와 -.28 ~ -.42, 외현화문제와 -.28 ~ -.32의 역상관을 보였으며, 내면화-외현화문제는 부모갈등과 약 .20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났다. 사회성 기술은 자기존중감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와 약 .40 ~ .50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갈등과는 -.16의 역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 존중감은 부모의사소통 및 부모양육태도와 .52 ~ .60의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갈등과는 -.09의 역상관을 보였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적응수준에 따른 개인 및 가족변인의 차이 검증

학교적응우수집단($n=169$)과 부적응집단($n=164$) 간에 개인 및 가족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 적응우수집단은 부적응집단에 비해 사회성기술 ($t_{331}=-12.430, p<.001$), 자기존중감($t_{331}=-15.366, p<.00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t_{331}=-10.488, p<.00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t_{331}=-8.736, p<.001$), 부모양 육태도 ($t_{331}=-9.299, p< .001$)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내면화($t_{331}=10.616, p<.001$) 및 외현화($t_{331}=9.659, p<.001$)문제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갈등점수는 학교 적응우수집단이 부적응집단에 비하여 낮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_{331}=1.297, ns$).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학교적응에 대한 개인 및 가족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표 4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우선 개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표 3 참고), 자기존중감, 외현화문제,

표 2. 집단간 개인 및 가족변인들에서의 차이검증

	학교부적응집단 M(SD)	학교적응우수집단 M(SD)	<i>t</i>
자기존중감	95.69(13.92)	118.66(13.37)	-15.366***
사회성기술	174.91(18.56)	197.90(14.93)	-12.430***
내면화문제	18.60(4.21)	14.47(2.73)	10.616***
외현화문제	20.93(3.22)	17.82(2.61)	9.659***
부의사소통	64.10(11.90)	77.78(11.91)	-10.488***
모의사소통	71.22(12.40)	82.53(11.21)	-8.736***
부모양육	81.46(9.68)	91.28(9.57)	-9.299***
부모갈등	66.33(10.41)	65.03(7.61)	1.297

*** $p < .001$

표 3. 학교적응에 대한 개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기준변인	예언변인	Beta	$R^2(\text{adj}-R^2)$	$R^2\text{change}$	F
학교적응	자기존중감	.452	.385(.383)	.385	110.244***
	외현화문제	-.136	.435(.433)	.050	
	내면화문제	-.118	.448(.444)	.013	
사회성기술		.122	.454(.450)	.007	

*** $p < .001$

내면화문제, 사회성기술이 모두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학교적응 전체 변량의 약 45%($F_{5,529}=110.244$, $p < .001$)를 설명해주었다. 각 변인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량의 상대적 크기는 자기존중감, 외현화문제, 내면화문제, 사회성기술 순이었으며, 자기존중감은 전체 학교적응 변량 가운데 가장 많은 38.5%를 설명하였고, 다음으로는 외현화문제(약 5%), 내면화문제(약 1%), 사회성기술(약 1%)의 순으로 추가적인 설명량을 보였다.

다음으로 가족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표 4),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학교적응 전체 변량의 약 22%($F_{5,529}=52.268$, $p < .001$)를 설명해주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전체 학교적응 변량 가운데 18.5%를 설명하였고, 다음으로는 부모양육태도(약 4%), 어머니와의 의사

소통(약 1%)의 순으로 추가적인 설명량을 보였다.

학교적응우수집단 및 부적응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학교적응과 관련한 개인 및 가족변인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학교적응우수집단과 학교부적응집단을 정확히 구분해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판별함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 외현화문제였으며, 판별함수의 Wilks' Lambda 값은 .506 ($p < .001$)으로, 사례의 84.4%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 즉, 자기존중감과 사회성기술 및 외현화문제는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의 약 85%를 정확히 구분해주었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 및 부적응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

표 4.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기준변인	예언변인	Beta	$R^2(\text{adj}-R^2)$	$R^2\text{change}$	F
학교적응	부의사소통	.265	.185(.183)	.185	52.268***
	부모양육	.173	.221(.218)	.037	
	모의사소통	.117	.228(.224)	.007	

*** $p < .001$

표 5. 학교적응-부적응집단을 구분해주는 요인

변인	lambda	판별함수와의 상관계수
자기존중감	.666***	.854
사회성기술	.525***	.693
외현화문제	.518***	-.539
Eigen 값	.978	사례의 정확 분류비율
Lambda 값	.506***	84.4%

*** $p < .001$

표 6. 남학생 집단에서 학교적응-부적응집단을 구분해주는 요인

변인	lambda	판별함수와의 상관계수
자기존중감	.713***	.869
사회성기술	.627***	.714
Eigen 값	.789	사례의 정확 분류비율
Lambda 값	.559***	85.0%

*** $p < .001$

표 7. 여학생 집단에서 학교적응-부적응집단을 구분해주는 요인

변인	lambda	판별함수와의 상관계수
자기존중감	.750***	.872
외현화문제	.543***	-.548
Eigen 값	1.109	사례의 정확 분류비율
Lambda 값	.474***	83.8%

*** $p < .001$

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별로 집단을 나누어 학교적응에 대한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 집단에서의 학교적응, 부적응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표 6과 같다. 판별함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이었으며, 판별함수의 Wilks' lambda 값은 .559 ($p < .001$)로, 사

례의 85.0%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 즉, 자기존중감과 사회성기술은 학교적응을 잘 하는 남학생과 그렇지 못한 남학생의 85%를 정확히 구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의 학교적응 및 부적응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표 7과 같다. 판별함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자기존중감과 외현화문제였으며, 판별함수의 Wilks' lambda 값은 .474 ($p < .001$)로, 사례의 83.8%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 즉, 자기존중감과 외현화문제는 학교적응을 잘 하는 여학생과 그렇지 못한 여학생의 약 84%를 정확히 구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적응을 잘하는 아동과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개인특성(내면화·외현화문제, 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과 가족특성(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부모갈등)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적응우수아동과 부적응아동을 구분해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은 자기존중감 및 사회성기술,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와 중등도 정도(약 .40 ~ .60)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와는 중등도 정도(약 -.45)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학교적응과 부모갈등은 -.05의 매우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은 자기존중감과 사회성기술이 높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 개방적이며, 부모양육태도를 아동중심적이고 애정적이며 민주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은 우울, 불안, 대인관계 위축과 같은

내면화문제와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문제를 적게 갖고 있었으며, 학교적응과 아동이 부모갈등을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기존중감과 사회성기술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내면화 및 외현화문제는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긍정적, 개방적이었고, 보다 애정적이고 민주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지각하고 있었다. 이를 역으로 얘기하면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동은 자기존중감과 사회성기술이 낮을 뿐 더러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고,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권위적이고 비난적이며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즉 Allen 등(1994)과 Aunola 등(2000), 그리고 차유림(2000)은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학교적응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리고 Doll(1996)과 정현희(2003)는 긍정적인 또래관계 및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우울과 같은 내면화문제(신민섭, 1997)를 지니고 있거나 품행장애와 같은 외현화문제(이경아 등, 1999)를 지니고 있는 경우 학교부적응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Chartrand(1992)와 유윤희(1994)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의 학교적응이 양호하다고 하였으며, Bronstein 등(1996)도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장기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학업적, 사회적, 심리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선경 등(1998)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 및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Tesser 등(1989)은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 경우 자녀의 적응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가족환경특성은 모두 아동의 학교적응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갈등은 학교적응-부적응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갈등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다소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선경 등(1998)은 부모불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한 반면, Davis와 Cummings(1994)는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과는 직접,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선희 등(2001)은 남아의 경우 부모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부모갈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갈등의 영향을 받는데 있어서 성차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부모갈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보다는 내면화-외현화문제와 같은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성차에 따라 부모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부모갈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남녀간 성차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반복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개인변인들 가운데는 아동의 자기존중감이 학교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변인들 중에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etsenzi, Ryan와 Adams(1998)는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지지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차유림(2000)은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Chen, Liu와 Li(2000)는 2년간의 종단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성은 아동의 정서적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언해 준 반면, 아버지의 온정성은 아동의 사회적, 학업적 성취를 보다 잘 예언해 주었고, 또 아버지의 방임은 아동의 여러 적응상의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적응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적 차원에서는 아동이 스스로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혹은 가치있게 지각하는가가 아동의 학교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 차원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데, 이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학교적응우수아동과 부적응아동을 잘 구별해 주는 요인은 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 외현화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별분석에서는 개인변인과 가족변인들을 모두 함께 투입하였는데, 이 가운데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들만 학교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을 잘 구분해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뤄 볼 때, 가족변인보다는 아동 개개인의 특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학교적응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적응-부적응집단을 구분해주는 요인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자기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이 외에 남학생은 특히 사회성기술이, 여학생은 특히 외현화문

제가 학교적응여부를 잘 구분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는 사회성기술이 저조할 때, 여학생의 경우는 외현화문제를 갖고 있을 때 학교적응에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역으로 사회성기술이 좋은 남학생일수록, 외현화문제가 적은 여학생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자기존중감과 사회성기술을 지니고 외현화문제가 없는 것이 남녀 공히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의 특성이나, 남학생은 특히 좋은 사회성기술을 지니는 것이 학교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며 여학생은 외현화문제가 없는 것이 학교적응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변인을 한 두 가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을 구분해 주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이고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족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이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에게는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가정과 학교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단위 집단상담이나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학교부적응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닌 것에

더하여, 아동이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성기술을 지니고 있고 외현화문제가 없을 때 학교적응이 우수한 것으로 보아, 효과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이나 대인관계(공감 및 자기표현)기술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따르며, 앞으로는 보다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업과 학교규칙에의 적응 및 준수, 그리고 교사 및 교우관계의 원만함을 학교적응의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이들 4가지 요인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하위요인들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요인들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요인과 가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이들 요인 외에도 또래요인과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의 요인들을 포함하여 아동의 학교부적응을 이끄는 위험요인과 학교적응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중섭 (1994). 부모의 양육유형과 아동의 성정형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선희, 김경연 (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 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태희 (1996).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 만족도: 청소년 발달, 중년기 변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영순 (1994). 교육심리학. 서울 : 문음사.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난숙, 오경자 (1992). Methyphenidate치료가 주의력 결핍-과잉활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235-248.
- 박성수 (1979). 아동의 부적응행동과 가족치료.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박수정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숙진 (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명성 (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민선, 이상오, 정무성, 정은(1998).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모델연구. 학교사회사업, 창간호.
- 신민섭 (1997). 아동·청소년기 장애. 삶의 문제와 적응의 심리학, 법문사.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유윤희 (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13-226.
- 이선경, 이재연 (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훈진 (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순 (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호성 (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현희 (2003). 중학교 진학 후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 청소년 상담연구, 11(2), 36-46.
- 차유림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e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1), 179-194.

- Angold, A., & Costello, E. S. (1995). Developmental Epidemiology, *Epidemiologic Reviews*, 17, 74-82.
- Aunola, K., Stattin, H., & Nurmi, J. E. (2000).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School Adjust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289-301.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University of Minnesota.
- Berndt, T. J., & Keefe, K. (1996). Friend's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A motivational analysis. In Juvonen, J. & Wentzel, K.R.(Ed),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pp. 248-27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nstein, P., Duncan, P., D'Ari, A., Pieniadz, J., Fitzgerald, A., Abrams, C.L., Frankowski, B., Franco, O., Hunt, C., & Cha, Y. O. (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ons middle schoo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5(4), 415-426.
- Buhs, E. S., & Ladd, G. W. (2001). Peer rejection as and antecedent of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 examination of mediating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550-560.
- Chartrand, J. M. (1992). An empirical test of a model of nontradi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93-202.
- Chen, X., Liu, M., & Li Dan. (2000).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dulgence and their relations to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3), 401-419.
- Cummings, E. M., Davis, P. T., & Simpson, K. S. (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41-149.
-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oll, B. (1996). Children without friend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School Psychology Review*, 25, 165-183.
- Forehand, R., Long, N., Brody, G.H., & Fauber, R. (1986). Home predictors of young adolescents' school behavior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7(6), 1528-1533.
-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Manual for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American Guidance Service.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in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mburg, D. A. (1992).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In Hamburg, D.A., *Today's children: Creating a future for a generation in crisis* (pp171-180). US: Random House.
- Ketszeis, M., Ryan, B. A., & Adams, G. R. (1998). Family Processes,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chool 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74-387.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Tesser, A., Forehand, R., Brody, G., & Long, N. (1989). Conflict the role of calm and angry parent-child discussion in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3).
- Matson, J., Rotatori, A. F., & Helsel, W. J. (1983).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to measure social skills in children: The Matson Evaluation of Social Skills in Youngster(MESSY).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1, 335-340.

원고접수일 : 2004. 2. 27

수정원고접수일 : 2004. 4. 28

게재결정일 : 2004. 5. 8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ung-Yoon Lee

Anyang University

Kyung-Ah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individual factors(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s, self-esteem, social skills) and familial factors(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ing behaviors, parental conflicts) between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group to school life.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above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and variables which classify between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group were also investigated.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535 elementary school students(boy 259, girl 276) in Seoul and Kyungki area.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school adjus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self-esteem, social skills, communication with parent, and parenting behavior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s. However, perceived parental conflicts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The well-adjusted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self-esteem, social skills, lower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s, positive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nd they perceived their parenting environment as more affectionate and democratic than maladjusted group.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lf-esteem among individual factors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 among family factors explained the most of school adjustment variance. Discriminant analysis showed that self-esteem, social skills, and externalized problems classified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group with 84% level of accuracy.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ren, school adjustment,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s, self-esteem, social skills,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ing behaviors, parental conflicts.